

# 광주과학기술원, 히거 신소재센터 개원

노벨화학상 히거 교수와 신소재 공동연구개발 ... 광산업 발전기여

광주과학기술원(원장 나정웅)은 6월14일 화학계의 석학 히거(Heeger) 교수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와 광주과학기술원에 <히거신소재연구센터>를 각각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미래의 신소재로 일컬어지는 유기태양전지, 유기물 트랜지스터, 고분자 레이저, 유연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등 차세대 플라스틱 전자공학 관련 소재를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히거 교수는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 200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으며, LED 및 태양전지 부문 연구와 산업화에 적극적이다.

광주광역시와 추진하는 <빛의 도시> 프로그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광주광역시 빛의 도시 관련 프로그램

기 간	전 략	비 용	내 용
2002-09년	신에너지산업 집중육성	585억원	태양에너지 인프라 기반 신에너지산업 집중육성
2004-08년	첨단부품소재 육성	502억원	자동차, 전자, 光산업의 부품소재 첨단화
2004-09년	나노클러스터 사업	816억원	차세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 육성
2005-08년	LED 사업	1,130억원	光산업 인프라의 첨단단지 내 LED클러스터 조성
2005-14년	과학기술응용 연구센터 운영	480억원	광주과학기술원과 산학연 연계로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2005-09년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5,130억원	어등산 일원에 조성해 국제관광지로 육성
2009년	光엑스포2009 개최		지역특화사업인 光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도모

자료) 2010 1등 광주건설의 비전과 전략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센터의 개원으로 전자공학 분야에 있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06/20>